

WOW는 '세계를 향한 창
(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우치다에

WOW CHEONGDAE



Winter

청주대학교,
진로 및 취업지원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Winter

겨울 낙엽과 나뭇가지에게 배웁니다.
알록이는 가을날 잘 보내왔노라,
너의 황홀했던 날들을 기억하노라
서로의 어깨 토닥이며 내어줍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줄 거라 합니다.
그러니 매서운 바람도 겁내지 말라 합니다.
너와 나의 민낯을 마주하는 이 겨울에
보석처럼 만난 작은 선물입니다.

유물에 담긴 시간



백자청화모란문병(白磁靑華牡丹文瓶)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말기 분원에서 제작된 백자 주병으로, 높이는 28.7cm다. 매우 세련된 기형과 문양을 자랑하며 유태(釉胎) 또한 최상급으로 보기 드문 명품이다.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 긴 목이 풍만한 몸체와 넓은 굽과 어울려 안정감을 준다. 동체에 가득 차도록 활달하게 표현된 모란절지문은 청화의 발색이 짙고 푸르며, 도안 또한 세련미가 넘친다.



하얗게
기다리며
사뿐히
사뿐히

하얀 공단에 푸른 수를 놓아
님 오시는 길 마중 나가네.
사뿐히 사뿐히
긴 치맛자락 바람결에 날리고,
길게 늘어지는 고갯짓 따라
꽃송이 잎새가 뻗어 오르네.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5 WINTER VOL. 68

청주대학교 소식지 <외우청대>의 '외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외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외성어 '외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ontents

02 Letter from President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Special Report

보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
다시 쓰는 명문의 역사

10 Special Interview

지적학과 김영학 교수에게 듣는
전국 최다 지적직 공무원 배출의 저력

12 Special Addition

인재개발원
진로 및 취업 트랙 안내

Glocal Report

14 Local Together

청주맹학교
구강건강관리 봉사활동 후기

16 Global Experience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 참가 후기

18 Ready Action

청주대학교 박물관
<명품 100選 특별전> 현장 스케치

WOW People

22 청인보(淸人譜) 제1장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동수 동문(행정학과 졸업)

26 청인보(淸人譜) 제2장

제24회 전국무용제 은상·안무상 수상한
전건호 동문(무용학과 졸업)

28 청인보(淸人譜) 제3장

지방자치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여받은
손희준 행정학과 교수

30 Photo Essay

저무는 빛에
고마워하라

We Are Young

32 Young Challenger

마세건(체육교육과 3학년)
윤병두(환경조경학과 4학년)
김태호(경제학과 4학년)
박지혜(연극학과 4학년)
장일영(건축학과 5학년)

Issue & News

38 Focus On

청주대, 1인당 장학금 전국 대학 2위 외

42 News Brief

청주대,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엄수 외

44 People News

교수소식 김경식 교수,
충북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취임 외
동문소식 영광철 동문,
국립오페라단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공연 외

46 Special Lecture

이중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명사특강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외우청대 2015년 겨울호(통권 68-4호)

발행일 2016년 1월 15일 / 발행인 김병기 / 편집인 이상철 /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 표지모델 연은지(호텔경영학과 3학년) / 가격 3,500원



2016년, 청주대학교의 새롭고 희망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장통의 파고를 넘어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지난 한 해의 에너지로 또 다른 희망의 한 해를 기원해봅니다. 힘차게 떠오른 태양의 기운이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민족의 힘은 오직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설립자 형제 분의 믿음은 청주대학교의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수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서 청주대학교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대학만이 새로운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학만이 새로운 시대적 소명에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학문의 가치를 계승해온 대학만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어제의 소중한 정신을 이어 오늘에 되살리고, 내일이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청주대학교는 더 많이 노력하고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한 이후에도 최고의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통과 세계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우암캠퍼스는 청대인에게 최고의 꿈의 무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도 세심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청주대학교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청주대학교의 자부심이자 힘인 10만 동문 여러분!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함, 탁월한 능력으로 이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힘이 청주대학교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모교에도 지속적으로 전해지길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이제 청주대학교는 새로운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서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자의 사명감으로 청주대학교 모든 가족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가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 병 기



김병기 총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지난 12월 21일, 김병기 총장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방문해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1천5백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6년 동안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과 불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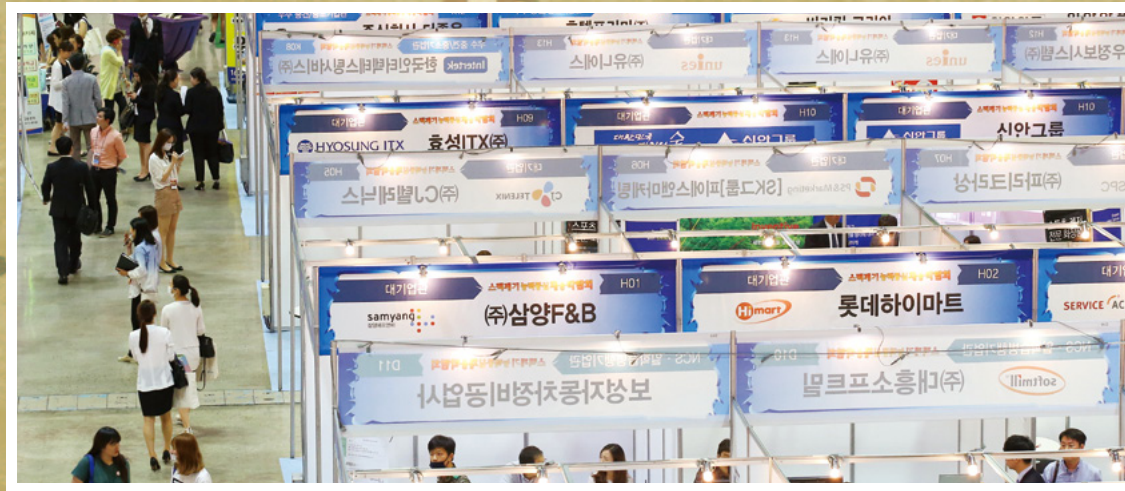
웃돕기 성금 등으로 1억3천5백여 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해왔다. 올해도 사단법인 징검다리를 통해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에 560만 원, 우암동 및 내덕동에 거주하는 20가구에 연탄 1만2천여 장을 전달했다.



김병기 총장, 사랑의 점심 나누기 동참
김병기 총장은 지난 10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우리대학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원을 찾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잔치국수를 대접하는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학생과 교직원들은 공원 한쪽에 임시 주방을 설치해놓고 약 700인 분의 국수를 준비했으며, 김병기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공원 이곳 저곳을 돌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Searching for My Job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 현장.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의 새로운 시대적 책무로 대두되고 있다.

Special Theme

청주대학교, 진로 및 취업지원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취업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대학 인재개발원의 이러한 자신감에는 일찌감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시장의 변화에 과감히 대응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과 예산투입,
끊임없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여정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06 Special Report

보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
다시 쓰는 명문의 역사

10 Special Interview

지적학과 김영학 교수에게 듣는
전국 최다 지적직 공무원 배출의 저력

12 Special Addition

인재개발원
진로 및 취업 트랙 안내

보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 다시 쓰는 명문의 역사

우리대학 인재개발원이 최근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들을 전방위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5개의 트랙은 우리대학 졸업생이라면 전문 지식은 물론, 사람 됨됨이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내재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교육으로 좋은 인재, 참 지성인을 배출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이제 대학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최적의 취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방위로 안테나를 뻗고 움직이며 스스로 최적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대학은 취업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취업지원실을 총장 직속 인재개발원으로 승격, 개편하고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트랙을 5가지로 체계화하여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대학의 취업지원제도 면면에는 '제대로 된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별도의 트랙을 구성해 '밥상머리 예절' 등의 코스를 경험하게 하고, 한편으로 '셀프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 집중 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트랙 1과 학과 및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트랙 3 등은 우리대학의 취업 경쟁력을 키워주는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5개 트랙 가동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이 작년부터 가동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5개의 트랙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커리어 로드맵이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고, 경험하면서 초기 진로 탐색부터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인재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가장 먼저 공무원·교원 집중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트랙 1은 그동안 수많은 공직자를 배출해온 우리대학이 다시금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한 핵심 프로그램이다. 우리대학은 올해 4월부터 과거 고시준비반으로 운영됐던 '청석헌'을 공식 기관으로 부활시켜 공무원 준비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임용고시 준비반인 '교원사관학교'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청석헌과 교원사관학교에 선발된 모든 학생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개인별 지정 열람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숙식하면서 무료로 필수과목별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충청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을 아껴 학교 안에서 공무원 및 교원 임용고시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랙 1의 기본 목표다. 한편, 청석헌에는 현재 120여 명의 입학생이, 교원사관학교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각각 선발되어 공직의 꿈을 향해 몰입하고 있다.

진로·채용 준비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트랙 2는 직업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과 소질, 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직업과 직무 능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게 된다. NCS 이해 및 진로설정,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 캠프, NCS 기반 면접 캠프 등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은 물론, 인성·리더십을 위한 교육까지

학과 또는 단과대학,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트랙 3에서는 각 학과 및 단과대학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진출 준비과정 이 이루어진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전문 지식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 학과가 제안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인재개발원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주도해 운영하는 취업 특화 동아리(가운누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취업과 관련된 전문성과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동아리이기에 학생들의 의지와 참여가 대단하고, 그만큼 성과도 좋은 편이다. 학과 특화 캠프, 금융기관 캠프, 언론 캠프, 대기업 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회진출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특화 프로그램당 200~3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직업윤리와 올바른 인성은 이 시대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이에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트랙 4에서는 5개의 취업 지원 트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직생활의 기본적 예의와 매너 등을 배우는 밥상머리 예절, 인문학 특강(저자와의 만남), 셀프 리더십 등을 통해 학생들은 조직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절을 상황별로 익히고 훈련하게 된다. 또 자신만의 믿음과 철학으로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트랙 5에서는 기업체(인턴) 체험, 경력개발상담센터 운영, Job Round with Lunch 등 기존에 인재개발원이 진행해오던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데 명확한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㉞



Mini Interview

든 인재, 난 인재, 된 인재를 키워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진주 인재개발원장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탁월한 업무지식과 스킬,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성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크게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은 이런 의미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인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20여 년간 인사교육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가, 김문수 팀장을 초빙하여 작년에 5개의 진로취업 지원 트랙을 구성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인성교육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직무중심의 채용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2015년이 5개의 트랙을 본격 가동에 앞서 시범 운영해보면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영향 등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은 수정하고 보완한 한 해였다면 2016년은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재개발원은 올해에만 약 11억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양질의 취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수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과 직업관에 부합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직업을 얻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처로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새롭게 도입한 5개의 트랙이 학생들의 미래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5개의 트랙과 단계별 프로그램들은 대학이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신화는 계속된다! 전국 최다 지적직 공무원 배출한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지적학과 김영학 교수에게 듣는 전국 최다 지적직 공무원 배출의 저력

국내 대학 최고의 지적학 명문을 표방하는 우리대학 지적학과가 올해에도 또 한번의 신화를 써 내려갔다. 2015년 전국 지적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총 26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다. 35년이 넘는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 지적직 공무원의 요람이 되어 온 우리대학 지적학과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김영학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Q. 올해 지적직 공무원에 26명이 합격했고,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전 LX대한지적공사) 공채시험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청주대학교 지적학과가 연이은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학과와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전국에 우리대학 출신의 지적직 공무원만 3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학과 교수와 연구원들도 27명에 이르러요. 단일 학과에서 배출한 동문 수만 놓고 봐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김태훈 전 LX대한지적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심우섭 제주 본부장, 박상갑 충북본부장, 김기승 대전충남본부장 등이 현재 활동 중이고, 국토부 서기관, 사무관으로 진출한 동문들도 꽤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위급할 때 구청에 가서 지적학과 선배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매년 졸업생의 약 50%, 평균 20~30명이 공기업과 공사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우리 학과의 역사를 감안할 때, 전체 평균으로 따져보면 해마다 13명 이상의 공무원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셈이지요.

Q.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와 지사는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으로 진출한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동문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고 있는 지적학과와 저력은 무엇일까요.
전국에 지적학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대학보다 앞서 강원대에 지적학과가 개설되었지만, 현재는 부동산학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 지적학과는 1979년 설립된 이래로 4년제 대학 가운데 목포대학교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지적학과 고유의 학문과 전통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적학에 정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대학만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매년 3등급 이내의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는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어 이제 지적학 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과의 또 다른 경쟁력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Q. 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지적학과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학과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에서도 단 세 곳뿐인 그야말로 특성화된 전공입니다. 그만큼 사명감이나 열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학과 교수 4명 가운데 3명이 모교 출신입니다. 남다른 자부심으로 모든 교수님이 적극적이시죠. 토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업무 가운데, 알고 보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절반 이상인 현실을 감안해 토지등록, 관리를 비롯해 해양필지 등록 등 향후 전망이 예측되는 분야를 새롭게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등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반을 운영해 공사와 공무원 시험 연계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수시로 교수와 학생들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시대가 바뀌면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해외에서의 경험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적학과 학생들은 어떤가요.

세계 100대 이내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KOICA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천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적학과 학생들이 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더 쌓고, 또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이 시대엔 무엇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만들고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Q. 앞으로 한층 더 경쟁력 있는 지적학과를 위해 좀 더 보완하고 싶으신 분야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정한 산학협력을 위해 학교 측에서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놓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박사과정 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전문가 우대 장학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공사나 지자체 산하 기관들과의 산학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우리 지적학과와 교육과 연구의 정체성이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학과로 꾸준히 성장하도록 끊임 없이 뒷받침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교육철학입니다. 앞으로 학과만의 자체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④





인재개발원 진로 및 취업 트랙 안내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청대인의 꿈

• 공무원·교원 집중 양성 프로그램

청석헌 (공무원 준비반)	교원사관학교 (교원 임용고시 준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 지급 (학기당 100만 원 / 타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 / 정규 재학생에 한함) 방학 중 숙식 지원 개인별 지정 열람실 제공 방학 중 필수 과목별 집합 특강 지원 직렬별 선택 2과목 인터넷 강의 상시 지원 지도교수의 개별 상담 및 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 지급 (학기당 100만 원 / 타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 / 정규 재학생에 한함) 방학 중 숙식 지원 방학 중 공동 정독실 제공 방학 중 공통·전공 과목의 집합 특강 지원 인터넷 강의 상시 지원 교직 과목별 책임 지도 등

•• 진로·채용 준비 단계별 프로그램

NCS 이해 및 진로설정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 캠프	NCS 기반 면접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별 직무 기반 진로 설정 지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 분류에 따른 강사 풀 제공 / 학과의 강사 선택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기반 입사지원서 작성 지원 2, 3학년 대상 / 수요 모집 후 수시 시행 (5시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 기반 다양한 면접 스킬(집단토론, PT 면접) 실전 실습 지원 4학년 대상 / 수요 모집 후 수시 시행 (5시간 과정)

••• 학과(단과대학)·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학과 특화 캠프	취업 특화 동아리	금융기관 캠프	언론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단과대학) 전문성 및 특화시장 취업 준비 지원 학과별 취업지원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업종 또는 직무 취업 준비 특화 동아리 지원 운영비 학기별 200만 원 지원 (공식절차에 따라 동아리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사 취업 지원 3, 4학년 대상 신청(30명 이상 모집 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사 취업 지원

••••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밥상머리 예절	저자와의 만남(인문학 특강)	셀프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하면서 예절, 인성 교육 및 사제간 소통 지원 전 학년 대상 / 학과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인생관 정립 및 동기 부여 저자 초청 특강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적 삶을 이끌 수 있는 역량 함양 전 학년 대상 / 향후 공고 참조

••••• 기타 프로그램

기업체(인턴) 체험	경력개발상담센터	Job Round with Lun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직무경험, 학점 취득 및 장학금 지급 3, 4학년 대상 / 학과 지도교수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진로경력개발취업맞춤 상담 제공 전 학년 대상 / 개별 예약 후 상담 (043-229-8734~5 / 043-229-89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심시간 이용, 진로 및 취업 관련 학과 교수와 인재개발원 간 토론 지원 잡 카페 이용 / 도시락 지원 학과단위로 취업지원팀 신청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 043-229-8977~8 ... 종합서비스센터 1층 ... www.home.cju.ac.kr/job

Glocal Report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가치와, 지역과 함께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14 Local Together
청주맹학교
구강건강관리 봉사활동 후기

16 Global Experience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 참가 후기

18 Ready Action
청주대학교 박물관
〈명품 100選 특별전〉 현장 스케치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건강한 치아, 건강한 웃음을 선물하다

청주맹학교 구강건강관리 봉사활동 후기

최희나 치위생학과 3학년

우리대학 치위생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 10월과 11월, 이틀에 걸쳐 청주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대한구강보건협회 충북지부와 청주시 치과의사회, 충북치위생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우리대학 치위생학과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해 80여 명의 의료진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던 최희나 학생의 생생한 봉사 후기를 전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뜻깊은 봉사

전공 지식을 나눔으로써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언제나 보람차며, 스스로를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5일, 2회에 걸쳐 치위생학과 김선주 지도 교수님과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팀은 청주맹학교에 방문해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 미래의 보건요원이 될 학과 특성상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학과 내에 봉사동아리도 여러 개 있고, RCY 같은 교내 봉사동아리에 많은 학생들이 가입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치위생학과와의 대표적인 봉사동아리로 꼽히는 "Early Bird(얼리 버드)"는 노인요양원이나 지적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구강보건관리 및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 대학생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맹학교에서 '구강건강 사랑나눔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3학년 학생 전원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에 앞서 10월 21일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청주맹학교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봉사 준비에 들어갔다.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흘러 넘칠 수 있는 '볼소 껌'보다 치아에 붓으로 도포하는 '볼소 바니쉬'를 더 많이 준비하는 등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최상의 준비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싶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맹학교 학생들에게 혹여 실수라도 할까 싶어 걱정도 많이 되고, 떨리기까지 했다.



맹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칫솔질과 충치예방 교육 진행

청주맹학교는 청주 시내에 위치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로, 총 12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청주맹학교 '구강건강 사랑나눔' 봉사에는 대한구강보건협회 충북지부와 청주시 치과의사회, 충북치위생사협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고,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발치, 스케일링, 치과진료 등 다양한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리 학과 봉사팀은 각 반을 찾아가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충치예방을 위한 볼소도포를 시행하며 학생들과 면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치위생학과 학생 2명당 청주맹학교 학생 1명을 맡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먼저 올바른 칫솔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치면세균막(치태)을 염색시켜주는 치면착색제를 모든 치아 표면에 발라 칫솔질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평소대로 칫솔질을 해보도록 했다. 칫솔질 후에도 착색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을 혀로 쓸어보게 해 대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칫솔질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서 닦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를 동반하여 손동작이 부자연스러운 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칫솔질 교육 때는 함께 손을 잡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거리낌 없이 우리를 믿고 손을 내밀어 준 학생들이 너무도 고맙았다. 칫솔질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에게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충치를 예방해주는 볼소의 작용과 효과를 설명하고, 미리 준비해 온 볼소 바니쉬를 치아에 도포해 주었다.

진정한 'Barrier Free'를 위한 소통과 공감

2차 봉사가 진행된 11월 5일, 구강보건교육에 1, 2차 두 번 모두 참석해 칫솔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1차 때 배운 올바른 칫솔질 법을 2차 때까지 잊지 않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교육을 담당했던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교육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었다. 교육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다음에 또 와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던 학생들이 있어 정말 기쁘고 뿌듯했다. 일상생활 속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 자신 또한 한층 더 성숙해지는 느낌이었다. 앞으로도 청주맹학교에서의 구강보건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나눔의 기회들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무료급식봉사, 지체장애인센터 방문 등 여러 봉사를 했지만, 시각장애인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폭을 좁혀감으로써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도 관심이 많아졌다. 이번 맹학교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치유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물리적 장벽까지 허무는 진정한 'Barrier Free'를 이루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함께 흘린 땀과 함께 나눈 시간으로 기억될 나의 프랑스 체류기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 참가 후기

김태원 신문방송학과 4학년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camp)는 올해 우리대학 국제교류팀이 진행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학생들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여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적도, 인종도, 문화도 다르지만 봉사를 통해 글로벌 프렌드십을 다지고 온 우리대학 김태원 학생에게도 이번 캠프의 기억은 오래도록 기억될 최고의 시간이었다.



01-05 캠프 합류 전 나 홀로 떠난 유럽여행에서 만난 풍경들- 러시아 모스크바, 벨기에 브뤼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피사, 오스트리아 빈 06 국제워크캠프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07 Antichan-de-Frontignes 마을의 멋진 구름 08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한국음식, 불고기 09 마을 축제장 건설을 돕는 워크캠프 작업 현장

캠프 합류 전, 나만의 유럽여행에 도전하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제워크캠프에 참여했다. 선발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3개까지 쓸 수 있었는데, 나는 1지방 프랑스, 2지방 독일, 3지방 이탈리아로 모두 유럽 국가를 지원했다. 봉사를 마치고 가급적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한 유럽을 선택한 것이었다. 운 좋게 원하는 프랑스로 떠나게 되었고, 직접 항공권과 교통편을 조사하며 다가올 그날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신경을 썼던 건 워크캠프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였다.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은 우리의 음식과 게임이었다. 불고기 재료들과 김등을 챙기며 나의 기대와 설렘은 더더욱 커졌다. 또, 워크캠프 전후로 계획한 개인적인 여행일정을 짜는 일이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유명 포털 카페나 블로그 등을 검색하며 나에게 꼭 맞는 루트를 하나씩 완성해나갔다. 대망의 출국일! 7월 14일에 출국해 8월 25일 귀국하기까지, 파란만장한 나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캠프 장소로 이동하기에 앞서 2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 벨기에 브뤼셀, 독일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피렌체, 피사, 로마 등을 여행했다. 동행도 없이 오로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컸지만 막상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모든 일정은 수월하게 진행됐다. 각 나라의 대표음식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평소 미술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명 미술관에서 수많은 명화들을 직접 대면하니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camp) 프로그램	
지원자격	기초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하고,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인 본교 재학생
교육내용	유럽 국가의 지역 호스트 단체에 의해 2~3주 단위로 기획되는 프로젝트에서 인종, 사상,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원봉사와 문화교류 체험
기간	여름방학 중 2~3주
학점인정	수료증으로 본교 교양 3학점 인정
장학지원	연수 수료 후 프로그램 참가비 50만 원 지원

언어를 넘어 열린 마음으로 캠프의 일원이 되다

그렇게 커다란 감동을 안고 캠프 현장으로 향했다. 내가 도착한 곳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Antichan-de-Frontignes'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세계 곳곳에 설치된 워크캠프장은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비치된 일종의 텐트촌이었다. 다행히 식사는 요리사가 있어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해 주셨다. 캠프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세르비아에서 온 밀리차, 터키에서 온 아헨과 잼, 우리 캠프단의 리더인 프랑스 출신의 빅토리아, 에스토니아에서 온 아트, 스페인에서 온 미겔과 마리아, 독일에서 온 지나,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승호가 있었다. 그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역시 '언어'였다. 유럽국가들은 각기 다른 자국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는 자국어는 엄격히 금지되고 오직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 비슷한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워크캠프 내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능숙한 영어실력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열린 마음이었다. 워크캠프의 종류는 환경미화, 아동, 장애인, 교육, 축제, 건설 등 매우 다양한데, 우리는 주로 마을의 축제를 위한 사전 준비 즉, 환경미화나 축제장 건설 등의 일을 돕는 일을 했다. 주로, 평일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부터는 수영이나 운동 등 캠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을 병행했다.

봉사활동과 문화교류가 공존하는 국제워크캠프의 매력

워크캠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첫째, 매일매일 정말 엄청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머물던 마을은 구름이 겹치는 지점이라 가장 멋진 구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흐린 날이면 우리는 구름 안에서 생활해야 했고, 맑은 날 밤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둥글게 마을 주변을 감싸는 가운데, 별을 보며 잠이 들었다. 모두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었다. 두 번째는 캠프 친구들에게 전파한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술자리에서 즐겨 하는 게임 몇 가지와 우리의 전통놀이 라 할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르쳐줬는데, 다들 어찌나 즐거워하던지 괜히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 기억을 꼽고 싶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불고기 요리를 준비한 나는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 덕에 또 한번 뿌듯한 경험을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3주간의 프랑스 생활을 돌이켜보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참 많았다. 하루 종일 일에 바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프랑스인들은 오후가 되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익숙했다. 캠프 친구들과 작별을 한 뒤 마지막으로 파리를 여행하는 것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바쁠 수 없는 세계 곳곳의 친구들을 알게 되고, 해외봉사라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단순히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들었을 프랑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차마 글로는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그때의 무수한 감동과 감정들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해보길 권하고 싶다. ☺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깃든 명품과 마주하다

청주대학교 박물관 <명품 100選 특별전> 현장 스케치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우리대학 박물관이 개관 48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명품 100選 특별전>을 열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500여 점의 '명품' 가운데 최고의 명품들을 가려 새롭게 선보인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고대유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대표 유물 100여 점이 한 자리에

1967년, 충청 지방에서 수집된 유물 300여 점을 선보이며 개관한 청주대학교 박물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우리나라 유물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온 소중한 공간이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청주 흥덕사지를 발굴하는 등 학술 연구에 이바지해왔고,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교육을 위해 다양한 유물을 꾸준히 수집, 전시해왔다. 현재 우리대학 박물관은 선사시대 유물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들과 민속공예품, 역사자료에 이르기까지 약 2,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물 하나 하나에 깃든 이야기

는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올해로 개관 48주년을 맞은 청주대학교 박물관이 지난 11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특별전시회 <명품 100選 특별전>을 열었다. 박물관 1층에 자리하고 있던 청석기념관(설립자 기념관)이 청석교육역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기획 전시실을 새롭게 꾸미게 되었고, 박물관 측은 박상일 학예사를 중심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 100여 점을 엄선해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교내 구성원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전통의 아름다움 선사

지난 11월 17일 개막식 당일 전시관을 찾은 내외빈과 학생들은 박상일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번에 전시된 유물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하(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박물관장은 "청주대가 그동안 수집한 유물 중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만을 엄선해 전시하고 있다. 교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청주시민들께서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개막식 부대 행사로 열린 문화특강에서는 박영원 흥덕대 교수(대한산업미술가협회 시각디자인학회 회장)가 '디자인 유머'를 주제로, 삶과 예술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전시회를 찾은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군인 청동검, 백자, 분청사기, 청화백자, 서지류 등이

중요 전시물로 소개되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보물 제720-2호)과 자치통감강목(충북 유형문화재 제359호)을 비롯해 보물급 자기인 백자청화장생문대호, 백자청화모란문병 등이 관람객들에게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이번 특별전은 각 유물군에서 특별히 선발된 작품들답게 아름다운 선과 색, 가치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시였다. 뿐만 아니라 전시 기간 중 박물관을 찾은 우리대학 재학생과 교수, 직원 등 교내 구성원은 물론이고, 청주 시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혼을 충분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

◆ 취재 도움: 청주대 박물관 박상일 학예사(역사학과 76학번)

청주대학교 박물관 주요 연혁

1967. 11. 10	박물관 개관(현 청석교육역사관 서측 건물 2층)	2001. 3 ~ 2001. 10	청주읍성, 남석교 학술조사
1973. 3	이공학부 건물로 박물관 이전(현 중앙도서관 자리)	2004. 9 ~ 2004. 12	청주 남석교 발굴조사
1976. 3	대학 본관(청석관) 건물 2층으로 박물관 이전	2004. 11 ~ 2005. 3	박물관 전시시설 재건축
1976. 12. 21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3호 지정	2008. 4. 11	묘법연화경(권 2, 4, 5, 6) 유형문화재 제246-2호 지정
1977. 8 ~ 1997. 10	중원 미륵리사지 발굴조사	2012. 4. 25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보물 제720-2호 지정
1977. 12. 25	독립건물 박물관 준공	2014. 7. 1	자치통감강목(권 27, 47) 유형문화재 제359호 지정
1985. 7 ~ 1985. 10	청주 흥덕사지 발굴조사	2015. 7	박물관 내 설립자기념관 청석교육역사관으로 이전
1990. 7 ~ 1991. 11	중원 미륵리사지 4, 5차 발굴조사		

특별전에서 만난 우리의 자부심

〈명품 100選 특별전〉 주요 전시유물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명품 100選 특별전〉에서 선보인 유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왜 이번 전시의 타이틀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옛 선조들의 삶과 생각의 결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작품마다 그 시대의 빛나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전에서 소개된 유물 가운데 6점을 소개한다.



동검
銅劍

청동기시대, 길이 49.7cm

한국의 청동기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표지적인 유물로, 검신(檢身)과 검파(劍把), 검파두식(劍把頭飾)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국식 동검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동검 중에서 초대형에 속한다. 칼집의 나무로 제작된 부분은 삭이 없어졌으나 동검의 몸체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검파두식에 장식된 한 쌍의 새의 몸은 속이 비었으나 목과 머리가 사실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팔두령
八頭鈴

청동기시대, 지름 14.8cm

청동기시대 주술적(呪術的)인 의기(儀器)의 하나로서 방울이 8개 달린 점이 쌍두령 또는 조합식 쌍두령과 다르나 용도는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팔두령이 몇 점 알려져 있으나 본 유물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백자청화장생문대호
白磁靑華長生文大壺

조선시대, 높이 51cm

순백의 바탕에 푸른 빛깔로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청화백자 황아리로서 전면에 걸쳐 밝은 코발트색의 장생무늬를 그려 넣었다. 높이가 51cm에 이르는 보기 드문 초대형 황아리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기형과 문양이 매우 세련된 작품으로 분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상감국화문모자합
靑磁象嵌菊花文母子盒

고려시대, 모함 지름 8.8cm, 높이 3.4cm / 자합 장폭 9.3cm, 단폭 5cm, 높이 3.6cm

고려시대 화장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기로서 원형의 합신(盒身)과 합개(盒蓋), 여의두(如意頭) 모양의 자합(子合) 4점이 한 조를 이룬 청자 모자합(母子盒)이다. 흑·백의 상감토를 감입하여 국화와 연국(蓮菊), 나비 등을 표현하였으며 굽에는 규석 받침을 한 예도 있다. 전체적으로 상감 문양이 뚜렷하고 유약의 광택이 좋으며 제작 시기는 대략 13세기로 추정된다.



청자음각초화문화형잔탁
靑磁陰刻草花文花形盞托

고려시대, 높이 13.5cm / 잔 8cm×10cm / 잔탁 6.6cm×15.8cm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형태의 잔탁이다. 굴곡이 심한 여덟 꽃잎으로 표현된 화형의 잔에는 외면에 파초 잎처럼 단순하게 표현된 초화무늬가 음각되어 있고, 굽은 나팔처럼 벌어지면서 안정된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무늬는 생략되어 단순한 모습이다. 얇고 부드러운 태토의 질감과 티 없는 유조(釉調) 등이 고려청자 전성기의 가작(佳作)임을 말해 준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고려시대, 가로 15cm, 세로 29cm / 보물 제720-2호

고려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금강경」의 주석서로, 상·하 2권의 1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당나라의 종일이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에 의거하여 해정이 그 뜻을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본래 권자본의 형식으로 판각된 것을 선장으로 장책한 것이며, 우리대학 박물관에서 소장 후 장정을 다시 하였다.

WOW People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22 청인보 제1장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김동수 동문

26 청인보 제2장
제24회 전국무용제 은상·안무상 수상한
전건호 동문

28 청인보 제3장
지방자치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여받은
손희준 행정학과 교수

CDL Labs

KOREA DIGITAL CABLE LABORATORIES

세계 최강
IT 대한민국을 만든
주춧돌로 살다

김동수 동문

행정학과 75학번,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여기,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역사와 함께해온
이가 있다. 오랜 세월 정보통신부 산하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이후 정통부 차관의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의
정보화를 이끈 주역, 그가 바로 김동수 동문이다.
'영원한 정보통신인'으로 통하는 그가 이번에는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어 또 한번
우리나라 케이블 산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에 변화의 물결을 선물해온
정보통신인의 길

1977년, 벽돌로 지어진 청주 대성국민학교의 어느 낡은 교실. 비닐로 유리창을 덧대고 베니어 합판으로 책상을 만들어 놓고 서른 명 남짓 청년들이 고시 공부를 했다. '학생연구실'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서 어려운 시절 함께 공부한 청주대 동기와 선배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고시에 패스해 당당히 세상 속으로 뛰어 들었다. 이듬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동수 동문도 청석현의 전신인 학생연구실을 따뜻하게 데웠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이었다.

김동수 동문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의 살아 있는 역사나 다름 없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 첫 직장이었던 청주우체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대목마다 함께 해왔으니 말이다. 당시 체신부의 전화사업을 공기업화하는 TF팀에 파견되면서 IT산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그는 1982년부터 통신정책국에서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며 카폰, 삐삐 등의 통신기기 도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정보화사회, 엘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 등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고, 셀룰러 방식으로 동시에 다수의 전화회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으며, 정보화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한 그때를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89년에 충주우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엑스포 현장에 파견되었는데, 모든 관람 동선에 최초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입장부터 식당 이용에 이르기까지 카드 하나로 해결되는 기술은 일대 혁신이었지요. 전화사업권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비쌌던 시절도 있었는데, 빠른 시대적 변화를 지켜보며 격세지감을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에서
펼치게 될 새로운 꿈

시대의 변화를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지켜본 그에게 정보통신부 산하 공무원으로 일해온 것은 매력적이고도 신명 나는 일이었다. 산림청 공직자로 근무하셨던 선전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고, 공무원 생활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삶,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에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은 지금껏 김동수 동문을 이끌어온 중심축이다.

“정보통신시장에 서비스 경쟁체계를 도입하면서 통신시장 개방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장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원칙이 세워지면 따른다는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십여 년 전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활약하면서 마침내 오랜 꿈에 꽃을 피워낸 그가 이제는 또 다른 분야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 원장으로 취임해 우리나라 케이블 TV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KLabs는 케이블업계의 공동기술을 연구하고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CAS 국산화 기술 개발, 기술 표준화 등과 같이 국내 케이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진행한다. 과거엔 통신과 방송은 별도의 영역이었지만, 광케이블의 개발로 통신회선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방송통신융합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김동수 동문의 오랜 경험이 기술연구소와 케이블방송 업체, 또 현장을 제대로 잇는 다리가 되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된다.



어머니와 같이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청주

“돌아갈 곳은 언제나 고향이지요. 유년시절부터 20대까지 제 소중한 경험과 기억이 있는 곳이잖습니까. 고향이 없으면 저의 존재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이어 케이블방송 연구 분야.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는 서슴없이 고향 이야기를 꺼낸다. 아름다웠던 청주시 미원면 옥화리의 들판, 외갓집 앞 개울에서 어머니가 잡아오신 올갱이, 신작로를 한참이나 걸어가 동무들과 물놀이하던 무심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화열매를 따 먹었던 여름날의 목화밭. 언젠가는 아련하게 남아 있는 추억 속의 고향 청주로 돌아가 알뜰히 보살피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그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며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청주대 동문들 역시 그에게 고마운 존재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청대인의 뚝심을 보여주는 선배배들을 만날 때면 미국 유학 시절 아들이 좋아하는 올갱이를 올려 싸웠던 어머니를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다.

“충청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충청도 고유의 중도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힘이지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던 충청인들은 조직의 균형자 역할, 평형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KLabs 신임 원장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낼 생각이고요. 그것이 내 고향 청주를, 또 모교를 빛내는 일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충청인들, 청대인들이 더 당당히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인다. 어느덧 세계의 기준이 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그 현장에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의미 있는 바람이다. ☺

섬세한 몸짓으로 그려내는 삶과 꿈

전건호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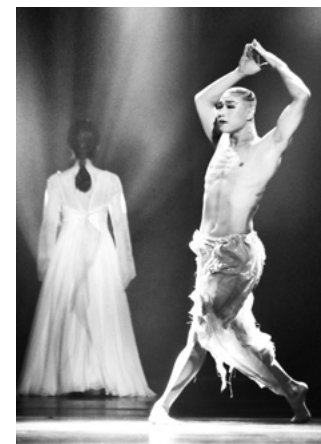
무용학과 96학번, 한국무용가,
제24회 전국무용제 은상·안무상 수상

시간이 흘러도 젊은 춤꾼일 것 같다. 쉽 없이 쏟아내는 이야기 속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손을 뻗어 표현하는 무용수의 열정이 보인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무용수로 활동해온 전건호 동문이 제24회 전국무용제에서 은상과 안무상을 수상하며 또 한 차례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았다. 창작무용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가 그려나가는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는 검은 무대 위 한 마리의 푸른 물고기였다. 손끝과 발끝은 지느러미가 되고, 몸짓은 심연을 유영하는 물고기의 몸 자체였다. 지난 9월 전국무용제에서 선보인 창작무용 <도하·어(渡河·魚)>는 전건호 동문에게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안무가로 본격 데뷔한 이 작품으로 은상과 안무상을 동시에 받았고, 25년 가까운 자신의 무용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언젠가 나만의 안무로 무대를 채우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왔었는데, 충북 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3월부터 함께 춤을 출 사람을 모으고, 안무를 짜고, 춤사위를 완성해가며 이 작품에 지극한 정성을 들여온 그는 완벽한 물고기 분장을 위해 삭발도 서슴지 않았다.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재구성한 <도하·어>는 물의 정령과 바람이라는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을 표현했다. '남아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끝내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돌아갔으니, 이에 어찌란 말인가.' 이 짧은 시구에서 그가 건져 올린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

“물에 빠져 생을 달리한 백수광부의 영혼을 물고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슬퍼하는 아내 앞에 물고기가 나타나고, 둘이 함께 듀엣으로 춤을 추죠. 삶과 죽음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면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순환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전건호 동문. 그에게 춤은 어떤 의미일까. 어린 시절 기계체조와 육상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는 수준급의 댄스스포츠 실력까지 갖춘 만능 춤꾼이다. 평소 존경하던 박재희 교수에게 춤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주대학교 무용학과를 선택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교수님은 무형문화재 '승무'의 이수자이기도 하세요. 30년 넘게 청주대에 계셨는데, 올 여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한국 전통무용 춤사위가 정말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유의 선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그에게 젊은 날의 훈장처럼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군 제대 후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을 다시 만들기 위해 새벽 3시까지 혹독하게 연습했던 '3무용실'. 그리고 그즈음 속리산에서 알게 된 나비난초를 모티브로 안무를 짜서 전국대학공쿨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 <나비난초>가 그것이다. 물구나무서기를 하며 발로 꽃을 피워내는 듯한 동작은 그때부터 무용수 전건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2012년 공연했던 <나와 나타샤와 시인>에서는 흰 당나귀 역을 맡았는데, 그의 원초적인 당나귀 몸짓은 지금까지도 가장 강렬한 춤으로 무용수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점차 주연으로 무대에 설 기회가 늘었고, 부드러우면서도 선이 굵은 그의 춤을 좋아하는 이들도 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청주시립무용단 수석단원으로, 청주시립합창단의 안무자로도 활동했다. 그러던 중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는 말자며 '전건호무용단'을 창단했고, 올해는 창작 춤 집단 '휘랑'을 열어 춤추는 이들이 언제든 헤쳐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춤을 바라보지만 나무도 세심하게 보는 무용수가 되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늙어갈지언정 항상 새롭고 늙지 않는 춤을 출 겁니다. 제 팬들도 저의 그런 점을 좋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만의 안무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자신의 춤을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 춤꾼에게, 그래서 내일은 행복할 순간만 남았다. 무용수로, 또 안무가의 이름으로 객석의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테니 말이다. 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만 피는 꽃, 지방자치

손희준 교수

행정학과 교수, 지방재정 전문가,
지방자치의 날 홍조근정훈장 포상

1994년부터 청주대학교 행정학을 이끌어온 손희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전문가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일에 오랜 세월 쓴 소리와 희망의 소리를 내어 온 그가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을 받았다. 남다른 해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치는 말 그대로 내가 다스리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는 오롯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와 경험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곧 우주인 셈이지요. 완전한 독립체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우주.” 지방재정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한 마디였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며 말문을 연 손희준 교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를 새삼 발견하게 했다. 손희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1982년 지방재정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쓴 것이 인연이 돼 1988년 당시 내무부 산하 연구관이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그 후로 30년 가까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분야의 정책 결정에 자문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 민선 20년을 맞이하면서 손희준 교수는 감회가 남다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곧 실현할 것 같은 여세로 출범한 지방자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또 하나의 정치집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오랜 기간 이 분야를 고민해온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다.

“지방자치를 왜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다 보니 관심과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요. 그래서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 동네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횡단보도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발전해야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는 그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어야 큰 것도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한다. 손희준 교수는 이러한 생각들이 적재적소에서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수여받은 홍조근정훈장은

27년째 지방재정만을 연구해온 그의 ‘한 우물 인생’을 기리는 기념비이기도 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주라고 말을 하는 교수에게 제자들은 어떤 의미일까? 1994년부터 우리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그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르침은 바로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학생들이 자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대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교육중심의 대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공무원 시험에 대거 합격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대학이 취업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이 없어서인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놓지 말아야지요. 희망은 개인에게 있으니까요.”

그가 지금껏 걸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설 수 있다면, 올바른 시작점이 된다면 사회는 희망의 방향으로 변화되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정부 정책에 끊임없이 쓴 소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며 작년부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손희준 교수, 그가 바로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백본(backbone)이자 참 어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①

저무는 빛에
고마워하라

저물어갈 무렵 깊은 아쉬움은 없으리라.
86,400초가 모두 살아 있었고 거짓이 아니었으니.
내 하루의 이야기는 우주 단 하나의 책이 되었으니.

다시 밝아올 때 거울을 보리라.
어제의 약속 풀고 떠오른 해에게 고마워하리라.
실부른 희망가 대신 사랑가를 부르리라.
저무는 빛이 다가오면
네 덕분에 더 선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 또 고마워하리라.



We Are Young

청대인의 젊음과 패기로 만드는 새로운 길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 그대의 심장에,
누구보다 치열한 오늘을 살고 있는
청대인의 땀과 노력에 아낌 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32 Young Challenger 1

마세건
체육교육과 3학년

33 Young Challenger 2

윤병두
환경조경학과 4학년

34 Young Challenger 3

김태호
경제학과 4학년

35 Young Challenger 4

박지혜
연극학과 4학년

36 Young Challenger 5

장일영
건축학과 5학년

마세건

체육교육과 3학년
2016 리우 올림픽 펜싱 에페 종목 국가대표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심판의 ‘알레(Allez)’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가슴이 뛰니다. 육상선수로 활동하던 중학교 1학년 때 운명처럼 다가온 펜싱이라는 세계. 피스트(Piste) 위에서 열정을 다해 지금껏 저만의 길을 만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얻게 된 다음부터 매 경기에 더더욱 진지해졌고,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할 땐 책임감 있는 선수가 되자 다짐하며 힘든 순간마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지금은 대학연맹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청주대 펜싱팀 12명이 한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도 꼭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알레(Allez)!
리우 올림픽을 향해
날카로운 검을
겨누겠습니다



윤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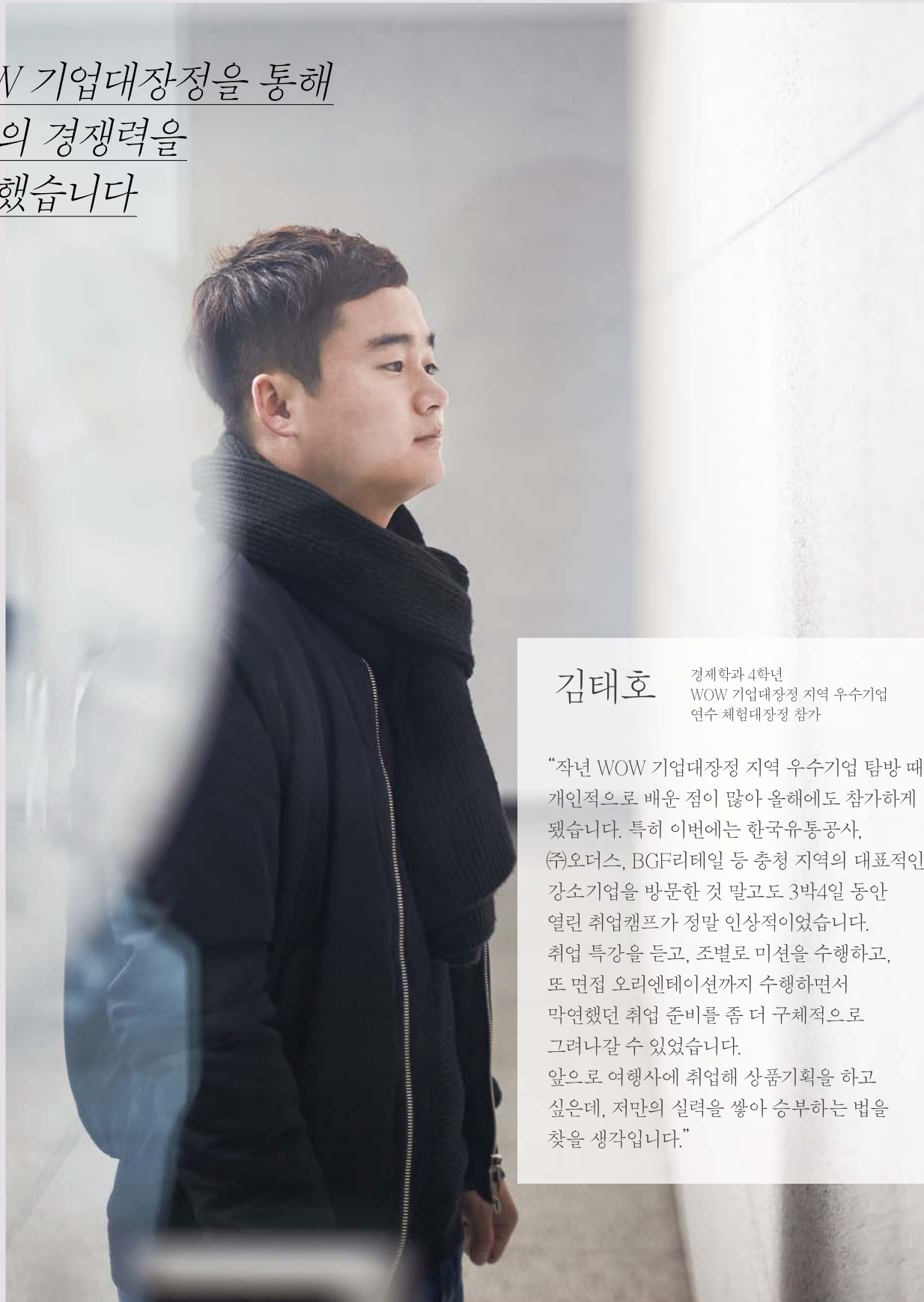
환경조경학과 4학년
제12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환경과 조경상' 수상

“지난 여름방학 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조경디자인캠프에서 2주 동안 ‘용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조정적 접근법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대상지를 조사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나갈지 팀원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짰고, 캠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 공부의 전환점이 되었던 기회였죠. 그때의 주제가 이번 조경대전 주제와 맞물려 작품을 출품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기쁩니다. 평소 버려진 공간을 되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학문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사, 도시 공간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WOW 기업대장정을 통해 나만의 경쟁력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호

경제학과 4학년
WOW 기업대장정 지역 우수기업
연수 체험대장정 참가

“작년 WOW 기업대장정 지역 우수기업 탐방 때 개인적으로 배운 점이 많아 올해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유통공사, (주)오더스, BGF리테일 등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을 방문한 것 말고도 3박4일 동안 열린 취업캠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업 특강을 듣고,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또 면접 오리엔테이션까지 수행하면서 막연했던 취업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행사에 취업해 상품기획을 하고 싶은데, 저만의 실력을 쌓아 승부하는 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박지혜

연극학과 4학년
제5회 충무로단편영화제 여자연기상 수상

“매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면 어김없이 여러 오디션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4편의 단편영화에 출연했고요. 지난 여름, 깊이 몰입해서 촬영에 임했던 영화 <메이데이>가 이번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개인 연기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이었던 무대, 그리고 연기자의 삶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아 설레는 요즘이에요. 청석골에서 또 대학로에서 각자의 꿈을 이뤄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또한 중심이 있는, 사람 좋은 연기자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지난 4년간 연극학과에서 배운 경험들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엔 단편영화 30편 출연을 목표로 더 열심히 뛰고 집중하면서 진짜 배우로 성장하겠습니다. ‘배우 박지혜’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사람이 좋은 연기자, 그 꿈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공유의 가치를 축적하는,
'함께'를 위한 설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일영

건축학과 5학년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
우수상 수상

“5년 동안 건축학을 공부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의 탐색과 고민이 커졌습니다.
중국 상해와 항주로 떠났던 졸업여행도
자유롭고 참된 삶을 위한 공간은 어떠한가
하는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청주시 북대동을 대상으로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1인용 복합주거공간을 설계할 때도
'여러 입주자들이 시설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되면 어떨까'란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공공의 積-
공유공간을 쌓다'가 저희 팀 주제였는데,
이런 저희의 생각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Issue & News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8 Focus On

청주대,
1인당 장학금
전국 대학 2위 외

42 News Brief

청주대,
정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엄수 외

44 People News

김경식 교수,
충북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취임 외

46 Special Lecture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명사특강 외

Focus 1

청주대, 1인당 장학금 전국 대학 2위

우리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이 전국 대학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8일 한국 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지난해 교내 장학금 222억 원과 국가장학금 270억 원 등 총 492억7천8백9십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1인당 장학금 395만6천 원으로, 전국 5천명 이상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지난해 장학금을 60억 원 늘리고 등록금도 전국 최대 폭인 4%를 인하하는 등 대학자체 노력에 따른 인정규모가 증가됨으로써 국가장학금 2유형에 속하는 충북도내 대학 중 가장 많은 48억 천만 원의 증가분을 기록했다. 충북도내 대학 중 우리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12억3천만 원에서 4억6천만 원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은 지난해부터 장학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취업을 위한 입학성적 우수장학금과 자격증 장학금을 비롯해 영어실력향상장학금, 봉사실천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금을 대폭 상향했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장학금과 학습튜터링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장학금 폭을 확대하면서 충북도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장학금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넓히기 위해 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소득분위 10분위까지 높이고, 성적을 하향 조정했다. 김병기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 제일주의’에 바탕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늘리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ocus 2

청주대, GTEP사업단 출범 5주년 컨퍼런스 개최

우리대학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사업단장 이호건 교수)이 지난 12월 12일 청주 라마다 호텔 직지홀에서 사업단 출범 5주년 기념 컨퍼런스 및 제10기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학 무역교육에 현장실무 지식과 현장실습을 접목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대학 GTEP사업단은 2012년 5월 선정 이후 현재까지 152명이 참가해 이 중 92명이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졸업자 38명 중 3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참여 교수진들의 적극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 64개 업체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 체결은 물론,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멕시코, 미국, 독일, 두바이,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13개 국가 50여 개의 해외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협력업체 중 ㈜디에스코텍, ㈜만상무역, ㈜바이오폐리텍, ㈜동성TCS 등과 공동으로 총 38만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호건 단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청주대 GTEP사업단은 중남미 지역의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대학교육의 한계인 현장 중심의 실무인재 양성과 지역산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Focus 3

청주대, 창업경진대회 & 팔로우 페스티벌 개최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와 충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창업경진대회&팔로우페스티벌'이 지난 12월 1일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14년부터 시작된 우리대학의 창업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열정과 교수의 지도가 창의적으로 결합한 창업축제 행사로, 올해는 22개 참가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팀 9개 팀이 나서 각자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이날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와 환경 조성,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 동아리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는 팔로우 페스티벌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5팀과 예선에 참가한 팀 중 7팀을 선발해 상금 310만 원을 수여하고, 이후 창업활동 지원금 1천7백5십만 원 등 총 2천6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교과), 창업학점교류제 등의 운영지침을 만드는 등 재학생들이 창업을 할 경우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창업자 발굴 및 교육에서 스타 학생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범식 창업교육센터장은 "학생들의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며, "특히 대학 간 우수한 창업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생 창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cus 4

소식지 <와우청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우리대학 사보 <와우청대>가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다.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와우청대>는 인쇄사보(사외보) 부문 편집대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대학의 사보인 <와우청대>는 총 40개의 출판작들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7개의 우수작 중에서 편집대상으로 선정됐다.

매년 4차례에 걸쳐 발행되고 있는 계간지 <와우청대>는 학내 이슈와 동문, 교수, 학생 등 구성원 인터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현황 등을 52페이지 분량에 담아 학내외를 물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졸업 동문 등에게 배포되고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우리대학 이상철 대외협력실장은 "〈와우청대〉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콘텐츠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사보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1991년에 한국사보대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25회째를 맞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인쇄사보, 전자사보, 영상물, 출판물 등 총 23개 부문과 특별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 기관, 단체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청주대,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엄수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설립자인 청암 김원근 선생(1886~1965)과 석정 김영근 선생(1888~1976)의 추도식이 지난 10월 8일 오후 청석학원 김윤배 이사 등 설립자 유족과 청석학원 내 각급 학교 동문, 재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은 설립자 약력보고, 헌화 및 분향, 추도사, 송가합창, 일반분향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추도식 후에는 우암산 청암 선생의 묘소와 부모산 석정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다.

청주대, 사랑의 아침 나누기 행사 진행



우리대학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 교내 곳곳에서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교무위원들과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사랑

의 아침 나누기는 중간고사 기간 중 아침을 챙겨먹지 못하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기획한 캠페인에 교무위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약 1,600여 개의 빵과 음료가 제공됐다.

영화학과,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 행사 진행



우리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청주동서로타리클럽과 손잡고 청주시 북이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정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또, 연기 전공 학생들은 10여

분 정도의 근육이완훈련을 통해 노인들이 최대한 자연스런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촬영한 북이면 지역 노인 200여 명에게는 무료로 영정사진을 제작해 증정하였으며, 11월 12일부터 이틀간 북이면 주민센터에서 사진 콘테스트 형식으로 전시회를 열고, 시상식도 가졌다.

청주대, 멕시코 뷰티 엑스포 참가



우리대학이 중남미 지역 최대 미용박람회인 멕시코 뷰티엑스포에 참가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우리대학 GTEP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 11명을 파견해 총 5건, 12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과 2천 달러의 현장

판매를 성사시켰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우리대학 GTEP사업단(단장 이호건)은 약 4개월을 준비하며 정성을 쏟았다. (주)바이오폴리텍의 콜라겐음료와 클렌징 티슈 제품을 비롯해 우수 뷰티업체로부터 마스크팩, 립타투 등 4개 업체 16개 제품군을 갖추고 미용뷰티 관련 제품 전반을 멕시코 시장에 선보였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총 60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참관객이 8만 명을 넘어서는 등 중남미 최대의 미용박람회 규모를 실감케 했다.

영화학과, 수암골 가을스케치 행사 진행



우리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이 <제빵왕 김탁구>, <영광의 재인> 등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진 청주시 수동 수암골에서 197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문화행사를 가졌다. 지난 11월 29일 일요일

오후에 열린 '2015 수암골 가을 스케치'에서는 30~4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70년대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복고풍 옷차림의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옛 시절 먹거리인 달고나, 솜사탕, 빵튀기 등도 함께 선보였다.

청주대, 디자인&아이디어 페어 개최

지난 11월 3일 우리대학 예술대학 청석갤러리에서 디자인&아이디어 페어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지자체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산·관·학·연이 함께 모여 현장에 접목해 현실화시키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제품 디자인 43점, 서비스 디자인 43점, 공간 디자인 23점이 출품됐으며, 출품작들은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상용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청주대,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우리대학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창작 뮤지컬 <DO IT!>을 공연했다. 지난 12월 15일 오후 7시, 우리대학 음악관 우암콘서트홀에서 막을 올린 <DO IT!>은 영화학과 학생 16명과 영문학과 학생 등 18명이 참여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현실 속에서 방향하다 점차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청주대,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학술대회 개최



우리대학 호텔경영학과 김혁수 교수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의 제50차 정기학술대회가 '융복합 관광산업 서비스 제고'를 주제로 지난 12월 5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대학 경상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역할과 추진 과제 ▲서비스 표준화 ▲복합리조트 적정수요와 성공적 개발을 위한 전략요인 ▲부동산 펀드의 호텔 투자 및 개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디자인학과, 충북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최우수상 수상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충북도와 함께 진행한 '제2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사업'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 공공디자인 서포터즈는 도내 대학생의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인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멤멤 길'은 '고추 먹고 멤멤'이라는 동요의 기원이 음성군이라는 점과 음성의 특산물 고추를 테마로 연결시킨 디자인이며, 우수상을 수상한 '다누리 길'은 충북도내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음성군의 특성을 고려해 골목마다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교수소식

김경식 교수,

충북문화재단 신입 대표이사 취임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가 지난 1월 4일, 충북문화예술계를 총괄 지원하는 충북문화재단 신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경식 교수는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 충북영상산업연구소 이사장, 한국영화인협회 충북지회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다큐멘터리 영화 〈바세코의 아이들〉을 연출했다. 한편, 김경식 신입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이효성 교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연임



신문방송학과 이효성 교수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에 연임됐다. 학회는 지난 12월 18일 우리대학에서 열린 추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올해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이효성 교수를 추대했으며,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1년 간이다. 이효성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편집위원, 소통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이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학훈 교수,

한국지역학회 회장 임명



지리교육과 김학훈 교수가 최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학훈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토 연구원에 재직하다 1994년 우리대학에 부임했다. 그간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한국지역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태철 교수,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시각디자인학과 김태철 교수가 지난 12월 16일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했다. 김태철 교수는 충북미술협회장, 청주예총 회장, 한국북아트협회 회장, 코리아북아트협회 초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상표 교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창립



환경공학과 홍상표 교수가 지난 10월 21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의 제13대 신입 회장으로 선출됐다. 홍상표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

사, 박사를 모두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연수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등의 활동들을 해왔다.

김영배 교수,

2015 한·몽 우수기업 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경제학과 김영배 교수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몽골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인 '2015 한몽 우수기업 제품 박람회'에 참가할 업

체 선정에 참여했다. 재단 측은 이번 박람회에 청주시 문화산업기업 공동관 부스를 마련하고 김영배 교수를 주축으로 선정된 청주 지역의 문화산업기업 6곳의 대표상품들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후속 납품 거래를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영범 교수,

한국노어노문학회장 당선



우리대학 이영범 교수가 한국외대에서 열린 한국노어노문학회장 정기총회 학회장 선거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영범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한-러 관계 발전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기 교수,

〈조씨, 유랑화(話)첩_CUBA〉 사진전 개최



연극학과 조민기 교수가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산의 갤러리 래(來)에서 개인 사진전 〈조씨, 유랑화(話)첩_CUBA〉를 개최했다.

최근 MBC 드라마 〈화정〉, SBS 예능 〈아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한 조민기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쿠바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열정이 느껴지는 22점의 사진을 선보였다.

동문소식

연광철 동문,

국립오페라단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공연



연광철(음악교육과, 88년 졸업) 동문이 지난 11월 18, 20, 2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역

으로 무대에 올랐다. 바그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작품에서 연광철 동문은 고래잡이 어선의 선장 ‘달란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세계가 인정하는 베이스 연광철 동문은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태호 동문,

'제19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권태호(법학과, 77년 졸업) 동문이 21세기뉴스 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제19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법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36년간 최

장수 검사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권력형 비리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권태호 동문은 검찰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청주로'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준 동문,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홍보대사 위촉



이동준(체육교육과, 83년 졸업) 동문이 2016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11월 27일 이

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동준 동문에게 위촉증을 전달하며 2016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의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 이동준 동문은 태권도 국가대표를 지내며 국제대회에서 4차례 금메달을 딴 바 있다.

조무주 동문,

수필집 〈물처럼 바람처럼〉 출간



조무주(국어국문학과, 75년 졸업) 동문이 네 번째 수필집 〈물처럼 바람처럼〉을 출간했다. 이번 수필집은 정지용 시인 생가, 청남대 등 충북 지

역의 명소에 대한 작가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1부와 청주시신청사 건립 등의 지역 현안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2부로 나누어 구성됐다. 조무주 동문은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와 충청일보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김민하 동문,

제4회 중국 국제대학생 단편영화제 수상



김민하(영화학과, 15년 졸업) 동문이 중국에서 열린 제4회 국제대학생 단편영화제에서 드라마 부문 2등상을 수상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세계

15개국에서 2,500여 작품이 출품돼, 그 중 100편의 작품만이 본선경쟁 부문에 선정됐다. 김민하 동문이 출품한 단편 〈분신사바〉는 우리대학 영화학과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인 '1인 1작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됐다.

남기헌 동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남기헌(행정학과, 83년 졸업) 동문이 대통령 소속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제도, 지방

분권, 지방행정 등에 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남기헌 동문은 충북 행정학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지영 동문, 제40회

부산동래전통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홍지영(무용학과) 동문이 지난 11월 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0회 부산동래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대회에 도전해 3번 만에 최고상을 거머쥔 홍지영 동문은 다섯 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해 그동안 전국무용제 은상 및 개인연기상, 법성포 전국국악경연대회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상일 동문,

2015 JIKJI 국제컨퍼런스 주제 발표



박상일(역사학과, 82년 졸업) 동문이 지난 10월 13일 청주시가 주최한 2015 JIKJI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홍덕사지 발굴 3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전문 연구자들이 1부와 2부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박상일 동문은 '홍덕사지와 직지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직지의 지리적, 시간적 배경을 돌아보는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효동 동문,

충북예총 '제37회 충북예술상' 수상



김효동(국어국문학과, 64년 졸업) 동문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북연합회 선정 '제37회 충북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열린 제57회 충북예술제 개막식에서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을 수여받았다. 김효동 동문은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시집 〈짐강다리 곁에서〉 등 10여 편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충북문인협회장, 충북예총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5년 10월~11월

2015. 10. 14

대한민국의 공명선거 발자취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0월 14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사로 나섰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역설한 이종우 위원은 '대한민국의 공명선거 발자취'라는 특강 주제에 맞춰 민주선거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거 변화와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선거의 발전을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는 과정으로 비유하며 "지속적인 공명선거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큰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우 위원은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2007년 법제실장, 2008년 사무처장, 2010년 사무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다.

2015. 10. 28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법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28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삶을 더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이석우 이사장은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본의 의사 오츠 슈이치가 환자의 경험담을 모아 집필한 저서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 다섯 가지>라는 책을 소개했다. 그 중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더라면'이라는 구절을 꼽으며, 학생들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밟았다. 2014년에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2015. 11. 4

변화의 중심에 서라

조준희 YTN 대표이사



조준희 YTN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4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자로서 나선 조준희 대표이사는 학생들에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며,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행 재직 당시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거래하는 은행'으로 이미지 혁신을 일으켰던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며 "간절함을 가지고 과감히 실행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준희 대표이사는 1980년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에 입행해 2008년 전무이사, 2010년 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순천향대와 호서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올해 3월 YTN, YTN DMB, YTN 라디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5. 11. 11

IT트렌드에 따른 기업의 인재상

장종태 SK하이닉스 청주지원본부장



장종태 SK하이닉스 청주지원본부장은 한양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기업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SK네트웍스에 입사해 2004년 SK그룹 인력개발원 HRD 기획팀장, 2009년 SK홀딩스 리더십개발센터장, 2013년 SK하이닉스 인력개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5. 11. 18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김병우 충북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난 11월 18일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 "교육은 지킬 것은 지키는 보수와, 바꿀 것은 바꾸는 진보의 중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자의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의 교육관을 밝히면서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깨우쳐야 가치 스승이 될 만하다"고 강조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했고, 2014년 제16대 충북교육청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2015. 11. 25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천정배 국회의원



지난 11월 25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국회의원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의원은 "성장이 멈추고 있는 한국을 살리는 답은 정치에 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정치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인 빈곤율, 남녀 임금 격차와 불평등, 재벌중심의 경제, 부의 독점 등의 폐해가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역할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다 1993년故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창립했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5년 19대까지 내리 당선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 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 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 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 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인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28503)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류 최초 3극점 7대륙 최고봉 등정
허영호 (청주대 85학번)

삼성전자 디자인그룹 전무
강윤제 (청주대 87학번)

한국인 최초 세계 50대 성악가
연광철 (청주대 84학번)

세상에 파란을 일으켜라

세계를 향한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세상에 파란을 일으킬
당신을 기다립니다.

스무살의 푸른심장 **청주대학교**

